

## 사교육 없는 학교 1천개 육성

### 공교육 경쟁력 향상 위한 정부 정책 본격 추진 특목고 입시, 지필고사·경시대회 성적 반영 금지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고, 교과교실제, 사교육없는 학교 도입,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자율화를 확대하고, '교과교실제'를 도입, 내실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 학교에 직접 부여하고,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사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를 도입,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선도학교 1570개를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과 학생 수를 고려해 1380여 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학교당 평균 5천만원~1억원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의 학생 책임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체 사교육비 중에서 영어만 3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영어 회화 능통자 약 5000명을 선발해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도 설치된다.

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차단한다는 목표로 대입과 특목고 입시 제도 역시 대폭 개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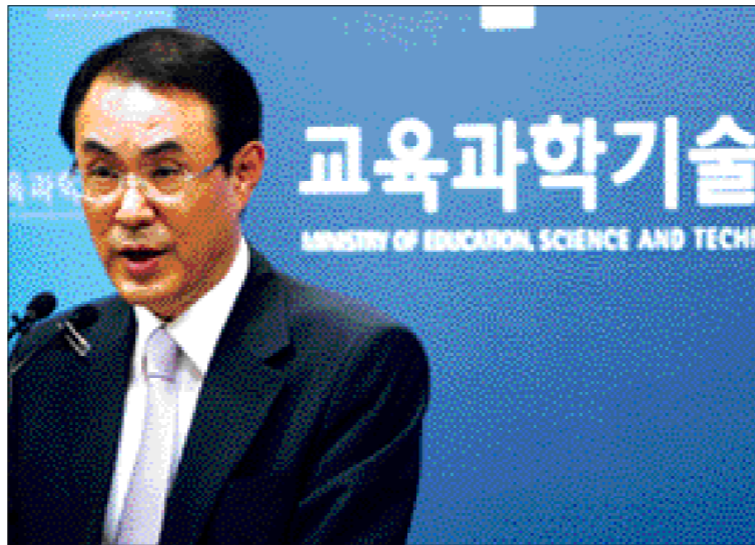
대입의 경우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40여 개교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기관 5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어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와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각종 경시·경시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한다.

과학교 입시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을 폐지하고, 내실성과 구술면접 등 복잡한 일련성형을 단순화해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 활용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 늦은 밤 학원가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를 위해 학원버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교육과학기술부 김차동 인제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공교육의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를 육성하고, 방과후학교 학부모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전체 학생의 4분의 3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코디네이터로 일정 보수를 받고 방과후학교 학생과 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엄마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학부모가 초등학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돌봄 역할을 맡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별로 다른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서울 기준인 밤 10시로 통일하고 학원 교습시간 준수를 지도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교육기관 수강료 제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사교육 시장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교과부 등 교육당국의 책무와 정보 제공 역할이 강화된다.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가 운영되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성과의 평가 비중을 50% 이상까지 높여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대책은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제도 선진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를 비롯,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늦어도 2010년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 서울대학교 김상국 교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나노자성박막내에 존재하는 스핀파 및 자기 소용돌이 구조의 동역학이론 정립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응용한 신개념 스핀 소자·소자 원천 핵심 기술을 확보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김상국 교수(金相國·42)를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6월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상국 교수는 지난 15년간 자성체의 물성관찰 및 자성체

신소재 및 소자개발 연구에 주력했다.

지난 2006년 4월부터 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스핀파 동역학-소자 연구단'을 이끌며 대학원생 연구원들과 나노 자성체의 스핀 동적 거동에 관하여 강도 높은 연구를 해왔다.

특히, 나노 자성체 내의 스핀파(spin-waves)의 파동성 규명 및 자기 소용돌이(mag-

netic vortex) 구조의 동적 거동을 컴퓨터 전산모사 및 이론 계산을 통해 학문적으로 이론 정립하는데 선도적 공헌을 하였다.

〈2면에서 계속〉

## 초·중등 학교정보공시 "새 단장"

### '학교알리미' 통해 학교 주요정보 공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년도 초·중등학교 공시정보가 6월 4일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작년 12월 1일 학교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 개통 이후, 각 공시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정보를 갱신하여 공개토록 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공시된 정보를 갱신하여 새롭게 게재한 것이며, 2008년에 공시한 학교 정보도 계속 게재되어 있어 각 항목의 연도별 변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시의 대상 학교 수는 초·중·고교 총 1만1,418개이고, 이번공시 내용은 학생변동사항, 교원현황, 급식실시 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10개 항목의 28개 세부내용으로 전체 공시대상 정보(15개 항목 39개 세부내용)의 70%에 해당된다.

이번 공시의 기준일은 '장학금 수혜 현황' 등 기간이 고려되는 정보는 2008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이며, '교

원 현황' 등 특정 시점이 기준인 정보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학교정보공시제의 정착으로 학부모들은 궁금해 하는 교육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되며,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금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선택제를 앞두고 관심 있는 고등학교의 최근 교육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정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단위학교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학교단위의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이후 공시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하였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학교,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을 독려했고, 일선 학교의 이해가 보다 쉽도록 지침서를 수정

하고 일부 공시 양식도 조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국민들에게 좀 더 유용한 학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시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기존 항목 내용을 수정하여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핵심정보들이 공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 공시화면에서 전국,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평균과 동일 지역교육청 내 다른 학교들의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토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및 내년도 실시 예정인 지방교육행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과의 연계 활용을 강화하여 단위 학교의 공시정보 입력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원석 기자 ws@eduyonhap.com

#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러 나가세요"



1. 기계를 작동한다.
2. 음식물을 버린다.
3. 10초 이내 처리 O.K



**Q. 생크레머스만 무엇인가요?**  
A. 생크레머 내부에 간편하게 부착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후 폐수 스프레이어에서 100%살균액(말린카살균)으로 분해하여 물로 배출하는 친환경 세공하여 무로로 버리고, 무로로 구애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Q. 정말 무료인가요?**  
A. 일정기간 무료사용 해보고 맘에 쓰시면 런 포인트 별세를 하시고 컵을 일정금액 사용하시면 컵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가 정 용 업 소 용

TS B10 1644-4415 주 부 사 원 모 집

민원청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WWW.TS-B10.COM 지사 및 센터 대리점 모집